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왕국절 제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6. 지난 이레 동안에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일터에는 여전히 할 일이 많건만 뜻밖에도 주님은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자”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치도록 일했고, 주님의 뜻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을 맴돌 뿐 삶의 중심에 이르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이제 마음의 소요를 그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밤이 깊어 아무 것도 식별할 수 없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호10:12	인도자
♠ 교 독 문	37. 이사야 40장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최성애 집사 II. 구성실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41.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함께
성경봉독	I. 암5:21-23	다함께
	II. 행5:34-42	박효선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맛을 잃은 예배	김재흥 목사
	II. 골수 그리스도인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383.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
십시오.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주님을 신뢰하
고 주님께 몸과 마음을 봉헌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다 함 께 : 주님, 우리 가슴속에 있는 진리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편견을 진리로 고집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린 유혹의 심연을 꿰뚫어보게 해주십
시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통독강좌(32)	신명기 강해(14)
기도 : 유영남 권사	기도 : 이순정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이용한 장로	하현철 집사

9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준호	이동천	김필순	박혜경	진정숙
	헌금위원	김철수	김정길	김용진	임창선	배삼순	김성자

여인숙(旅人宿)

인생은 여인숙
날마다 새 손님을 맞는다.

도상(途上)의 실존이라는 말이 가슴을 설레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길’의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혼이고 싶었습니다. 평범하고 진부한 착한 사람이기보다는 눈총을 받더라도 길에서 조금 비껴난 자리를 스스로 택하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정착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라도 유르타(유목민들의 천막집)를 걷어 훌가분하게 떠날 줄 아는 유목적인 삶의 방식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호사가 허락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착생활을 하면서도 유목적인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도하는 시간은 늘 예기치 않은 기적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만 뜨면 우리는 늘 새로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고,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기쁨, 낙심, 무료함,
찰나에 있다가 사라지는 깨달음들이
예약도 않고 찾아온다.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은 멋진 나그네일 수도 있고, 행색이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낙담,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 등이 무시로 갈마드는 것이 우리 생입니다. 아, 별똥별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가 연기조차 없이 사라지는 깨달음도 있네요.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잘 대접해라!
그들이 비록 네 집을 거칠게 휩쓸어
방안에 아무 것도 남겨두지 않는
슬픔의 무리라 해도, 조용히
정중하게, 그들 각자를 손님으로 모셔라.
그가 너를 말끔히 닦아
새 빛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한 개인이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온갖 일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기 이해를 통해 주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오하려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가지고 올 때가 많습니다. 실패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으며, 늘 건강하다면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자연 속을 걷는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깊은 곳을 통찰할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두운 생각, 수치와 악의가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웃으며
맞아들여라.

때때로 찾아오는 어두운 생각을 나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싶었고, 흠 없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흠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와 실제의 나는 언제나 불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화에서 비롯된 평정의 파괴가 저를 병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신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꾸미고,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병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치와 악의도 나의 실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보시며 빙그레 웃으십니다.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겨라.
그들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들이니.

아, 삶의 모든 순간은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초대장이 허름하든 화려하든 그 내용은 분명히 '나의 잔치에 참석하라'는 부름입니다.(석)

(인용한 시는 13세기 아프가니스탄의 시인 루미의 <여인숙> 전문입니다)

▣ 마/음/으/로/읽/는/글

저절로

아이가 울고 웃는 것이나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보면서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고,
사나운 개가 서로 싸우는 것과
약아빠진 고양이가 재롱부리는 것 역시
조용히 관찰해보면 그 속에 지극한 이치가 있다.
봄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것과
가을 나비가 꿀을 모으는 것에도 천기가 움직이고 있다.
개미떼가 진을 이루며 행진할 때는
깃대와 북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절도 있게
저절로 가지런해져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천 마리 벌들의 방은 기둥과 대들보가 없는 데도
칸 사이가 저절로 고르게 되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아주 미세한 것들이지만
거기에는 지극히 오묘하고 무궁한 조화가 깃들어 있으며,
천지의 높고 넓은 것과 고금의 오고 가는 것 또한
장쾌하고 기이하기 그지없다.

(이덕무, 『이목구심서』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방현복 이부방 윤정덕 구성실 방문성 박해경 백승민 이한림 김명희
 안정숙 김순복 전영웅 김윤수 박옥경 이정규 이인섭 박순희 윤미경
 박재실 김진경 송동준 남현우 김은진 박홍재 김희진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조항범 오현정 윤성종 김윤정 문금석 정두리 김종문
 지명주 김미순 김정섭 송의섭 이은자 서재홍 박현우 정진경 허광식
 임원민 임수연

감사헌금:

박창운 허정윤 김용진 박효선 하재두 홍복선 박범희 차덕철 이인섭
 김지윤 무명2

생일감사헌금:

김춘려 권혁순 이성경 노순옥 무명1

구도헌금: 김기석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최 희 영	김 애 경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재 문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김 경 수	김 필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김 재 광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린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이 형 숙	최 종 원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이 영 옥	오 현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영 선	김 희 우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박 미 영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교회연합주일** : 오늘은 교회연합주일입니다. 교파를 뛰어넘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수립된 새로운 가정의 식구들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선교회, 여선교회 연합 월례회가 있습니다.
3. **교우 만남의 날** : 다음 주일(19일)은 회막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만났던 히브리인들처럼 모든 청파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옛 교우들, 그리고 새로운 교우들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모든 분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날만큼은 교회 마당에 차를 주차하지 마십시오.
4. **심방** : 속 식구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
14일(화) - 예루살렘, 안디옥 16일(목) - 고린도, 엠마오
5. **신앙실천** :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벼으로 삼아야 할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귀한 잔치에 초대하십시오.

* 헌화 : 최윤희(남편 생일 감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